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공자가 등용되지 못하는 세상

'논어'의 제9편은 자한(子罕) 편이다. '한(罕)은 드물다는 뜻인데, "공자는 이익과 명(命)과 인(仁)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익과 운명과 어찌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았다. 당대에 이미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던 공자는 이익 대신에 의(義)를 말하고, 운명과 인(仁) 같은 큰 문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자신의 학식과 경륜을 펼쳐 보고 싶었지만 써 주는 제후가 없었다.

공자가 지금 산둥반도 북쪽의 제(齊) 나라로 망명했을 때 제나라 제후인 경공(景公)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아야 합니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공자의 11세손이었던 전한(前漢)의 공안국(孔安國)은 "당시 진환(陳桓)이 제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서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했기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나라

제후 경공을 제치고 진환이 국정을 주도하는 현실이 잘못이므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자의 답변이 마음에 든 경공은 이계(尼谿)의 전답을 떼 주어 공자를 등용하려 했다. 그러자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 유자(儒者)들은 온 재산을 다 기울여 장례를 치르고, 사방에 유세하면서 써 주기를 빌기 때문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반대해서 좌절시켰다. '논어' 자한 편에서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은 공자에게 "여기에 아름다운 옥(玉)이 있을 경우 이것을 껍데 속에 감추어 두겠습니까? 좋은 값으로 살 사람을 찾아서 팔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팔아야지, 팔아야지"라고 말했다. 공자는 "팔아야지, 종이 다"라고 답했다. 여기에서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의 '아대가자'(我待賈者)란 사자성이 나왔다.

공자의 고국인 노(魯)나라 실권자 계씨(季氏)의 가신인 공산불요가 비(費) 땅에서 계씨에게 반란을 일으켜 공자를

불렀다. 뜻밖에도 공자가 가려고 하면서 "대개 주(周)나라의 문왕이나 무왕은 풍(豊)과 호(鎬) 땅에서 일어나 왕이 되었는데 지금 비(費) 땅이 비록 작지만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자 자로(子路)가 가지 못하게 막자 공자는 "무릇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헛되게 부르겠는가? 나를 등용한다면 그 곳을 동주(東周)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자신은 작은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내 가지 않았다. 명분을 택한 셈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공자의 나이는 들어 갔다. 공자는 위(衛)나라에서 써 주기를 바랐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진(晉)나라의 실권자인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러 가려 했다. 위나라에서 지금의 산서성 등지에 있던 진나라로 가려면 황하를 건너야 했는데 강을 건너려는 순간 조간자가 진나라의 어진 대부인 두명독(董明獨)과 순화(舜華)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자는 황하를 앞에 두고 탄식하며 말했다. "아름답구나. 양양(洋洋)

한 강물이여! 구(丘:공자)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명(命)인가!" 공자는 자신이 현실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공자는 현실에서 능력을 써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신 역사서 '춘추'(春秋)를 써서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을 두렵게 했다.

공자가 살던 춘추(春秋) 시대에 공자처럼 학식 있고 능력 있는 현자보다는 권력을 붙잡는 부나방들이 득세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권력의 부나방들이 고위 공직자로 지명되어 정문회 때마다 논란이 일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그 양상이나 형태는 전 정권 때와 흡사해 거의 복사판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언제쯤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옥'을 제값 주고 사는 훌륭한 장사꾼을 집권자로 기릴 수 있을 것인가? 옥 값을 치르고 돌을 사는 장사꾼만 택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명(命)인지 가끔 곰곰한 생각이며 든다.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장>

社說

양 시도 지방세 욕심에 혁신도시 그르칠라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 조성 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가 광주시와 협의 없이 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기틀이 뒤틀린 상생 정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과 시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부터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그동안 정주 여건 개선에 1576억 원이 투입된 만큼 이전 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3년 이후에 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금 조성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의 컨트롤 타워인 발전 재단 설립과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다..

시도는 지난 2006년 상생 협약을 토대로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왔던 등 16개 공공 기관을 유치했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 사례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부터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 못하는 이유 뭘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함께 유아 보육과 교육의 한 축(軸)을 담당한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국·공립 33곳을 포함해 총 1205곳(2018년 9월말 기준)이다. 이곳에 연 평균 2500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막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부터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광주 5개 구청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공개된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몇몇 유치원 운영자의 처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역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감사 결과 공개가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환골탈태(換骨轉胎)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다.

광주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오는 15일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광주 5개 지자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어린이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의료칼럼

수험생 건강 관리



양 지 애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내과 과장

정도만 먹도록 한다. 평소 먹던 양의 80%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모자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미세 수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을 보는 시간에 뇌를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 보름 전부터 시험 시간표에 맞춰 일찍 기상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에게 위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며, 음식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고 속 쓰림 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10분~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수능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체력 증진이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먹지 않던 약물, 예컨대 보약이나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을 새롭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중 에너지 드링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상승시켜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수치는 68~180mg 정도로, 하루 두 캔 이상 마시면 청소

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 125mg을 초과하게 된다. 과량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거림, 어지러움, 불면, 불안,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에너지 드링크보다 건강한 음료를 챙겨 마실 것을 권한다. 수능 스트레스로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구기자를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오미자차는 주의력과 인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수능을 앞두고 긴장 탓에 소화 불량을 겪는 수험생이라면 로즈마리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 두 시간 전에 일어나는 게 좋다. 사람의 몸은 잠에서 깨어난 뒤 두 시간 정도가 경과되어야 두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아침식사는 평상시에 먹던 메뉴로 간단히 하도록 하자. 뇌 활동이 활성화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당일 아침은 소량이라도 꼭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해 바나나, 꿀, 초콜릿 등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초콜릿은 기분전환 및 두뇌 회전에 좋다.

수능 당일 감기라도 걸리면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체감 온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이후는 장기레이스 속에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수능은 끝났어도 입시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눈술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 등 남은 입시 일정까지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럴 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것이 비염 증상이다. 흔히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비염의 경우, 증상이 심할 때는 코를 통한 호흡에 장애가 생겨 구강 호흡을 하게 되므로 인후염에 걸리기 쉬워지고 그러면 머리가 무겁거나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비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침구류 청결 관리에 신경 쓰고 실내 습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도 차로 인해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차고 신선한 공기를 가끔 크게 들이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약물 요법으로는 항히스타민제 혹은 비강 내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코 속에 뿌리는 점막 수축제 등이 도움이 된다.

기고

국립공원, 새로운 생태 복지서비스로 거듭나다



남 태 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다. 정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연 보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데 한편,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및 흡연을 금지하고 특별보호구역 등을 지정해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공원 관리 등 국민 친화적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이러한 많은 노력을 덕분에 국립공원은 7~80년대의 국립공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서 '국립공원 가치 매기기'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현재는 22개소)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103조 4000억 원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브랜드 가치(99조 3000억 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에서 새로운 생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생태 복지서비스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다소 생

소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미 생태 서비스나 생태 복지는 이미 여러 경로로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유행한 웰빙(Well-Being)에서부터 웰빙(YOLO), 힐링(Healing) 열풍이 생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생태 복지가 함은 쉽게 말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 복지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잘 보전된 국립공원의 자연 환경을 누리고 심신의 휴식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 완화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 나누리 캠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 나누리', 사람의 생애 주기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표 암 투하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과 다수의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암환자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발달 취서 평소 자연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자연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 관계를 일깨워주는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는 등 생태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 생태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생태 복지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사례를 분석해 더욱 질 높은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품격에 맞는 생태 복지서비스 증진과 생태 가치 강화를 통해 국민이 휴양, 힐링 등 자연의 다양한 혜택을 다음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無等鼓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2만9745달러였으며 올해는 선진국 기준이라는 3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소식이다. 물론 선진국이라는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앞선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요즘은 '국민 행복'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각이 더 많다.

공공 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지난해 세계 33위까지 상승했지만, 유엔 행복 보고서에 나타난 행복감은 계속 하락해 2017년 기준 57위였다. 1인당 소득이 2336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만 역시 최근 소득이 늘어나자 행복감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1인당 국민 소득·빈곤율·문맹률 등의 통계 외에 혁신 기반과 문화·신뢰·매너·여유·배려 등 측정하기 어려운 것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아랍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주장하는 이들

도 있다. 선진국에서 공공은 언제나 지역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그곳에서는 특히 의료·교육·교통 등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안 된다. 다만 부유층은 비용을 대지 못하는 대신 높은 질의 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유치원 비리와 함께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도시 공간 곳곳의 고층 아파트, 도시철도 2호선 찬반 논쟁 등은 어쩌면 공공 서비스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공이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에 자기 영역을 내맡겨졌거나, 지금까지 누려온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어느 문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기관, 교육 기관, 공기업 등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금·복지 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정작 그들이 행하는 공공 서비스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220-0632 | 220-0652 | 기획관리국 | 227-9600 |
| 220-0663 |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220-0664 | 220-0693 | 디자인실 | 220-0536 |
| 220-0642 | 220-0697 | 서울지사 | 02-773-9331 |
| |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